



ESG 대출 글로벌 최우수 은행 · 단기투자상품 글로벌 최우수 은행

세계가 인정한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JANUARY 2025 Vol.238

CEO REPORT

MONTHLY CEO

국내 1위 SCR 탈질촉매 전문기업
(주)나노 신동우 대표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2025 JANUARY Vol. 238



CEO Report 웹진

발행일 2025년 1월 2일 통권 238호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429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김규섭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385

기획 IBK경제연구소

※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SPECIAL REPORT

- 02 **THEME**
2025년 글로벌 경제 전망과 한국의 선택
- 04 **SPECIAL 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세계무역 둔화 대비해야
- 08 **SPECIAL ②**
2025 한국 경제 좌우할 핵심변수
반도체 수출-내수 회복에 달렸다
- 12 **TABLE TALK**
전문가들 새해 경제 전망
“불확실성 견어내야 희망”



ECONOMY

- 18 **MONTHLY CEO**
국내 1위 SCR 탈질촉매 전문기업
(주)나노 신동우 대표
- 24 **START-UP**
천홍준 대표, 조성훈 대표, 오정민 대표,
이동민 대표, 김진철 대표
- 28 **MARKETING**
편플레이션:
즐거울 때 활짝 지갑이 열린다
- 32 **TAX**
2025년 1월, 바뀌는 세법에 대비하자!
- 34 **IBK EXPLORING**
세계가 주목한 가치금융,
새해에도 더 높은 가치를 향해
- 36 **GLOBAL ECONOMY**
지금 세계는:
- 38 **INDUSTRY TREND**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CULTURE

- 40 **LAW**
모두에게 곤란하고 괴로운 권고사직,
어떡해야 할까요?
- 42 **MOVIE**
영화 <둔>
사막 위의 별을 찾아서:
미래를 여는 리더의 비전
- 44 **ESSAY**
나이가 들면 저절로 철학자가 된다
- 46 **WORK OUT**
등산의 백미 겨울 산행을 준비 중이라면



2025년 글로벌 경제 전망과 한국의 선택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5 AND SOUTH KOREA'S CHOICES

- 02 THEME
2025년 글로벌 경제 전망과
한국의 선택
- 04 SPECIAL 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세계무역 둔화 대비해야
- 08 SPECIAL ②
2025 한국 경제 좌우할 핵심변
반도체 수출-내수 회복에 달렸다
- 12 TABLE TALK
전문가들 새해 경제 전망
“불확실성 견어내야 희망”

새해는 밝았으나 글로벌 경제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한국도 마찬가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쇼크, 러우전쟁,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탓이다.
IMF(국제통화기금)가 2024년에 10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2%이다. 코로나19 발생 전 10년간 평균 세계
경제성장률은 3.56%였다. 한국도 이와 같은 외부 요인을 피해 갈 수 없겠지만 내부
요인도 분명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5년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를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세계무역 둔화 대비해야

‘강화되는 트럼프즘, 심화되는 성장격차’.

2025년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새해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주요국 및 지역 간에 차별화된 성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집권 2기 상황은 집권 1기 상황과 비교해 어떠한 상황인지, 세계 경제 3대 리스크와 주요국 경제 성장 전망을 살펴본다.

Profile. 정영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 현 투자플랫폼위원회, 민간위원
-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025년 세계 경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2025년 세계 경제 흐름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강화되는 트럼프즘, 심화되는 성장 격차’를 제시한다. 트럼프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미국 최우선주이다. 대내적으로는 자유주의, 우익대중주의를 지향하고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비개입주의를 지향한다. 트럼프의 대표적 공약은 관세 인상, 감세, 불법 이민 추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책의 전개 양상에 따라 미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경쟁 및 제재 대상 국가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차별화 양상이 전개될 수 있음을 묘사한 것이다.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0%로 2024년(3.1%)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 추진 가능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제약적인 높은 금리 수준 지속, 고부채 문제가

세계 경제 성장을 압박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5년 세계 경제를 트럼프 1기 정부 시기(2017~2020년)와 비교하면 세계 경제는 트럼프 1기 정부의 2년 차(2018년)와 유사한 흐름(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속 미국 경제의 나홀로 성장세 호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과거 1기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며,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보호무역주의 정책 시행이 트럼프 1기에 비해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트럼프 1기 정부의 경우 대중 관세 등의 무역 제재는 대통령 취임 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중반에 시행됐다. 트럼프 1기 중 무역 제재가 가시화된 2018년의 경우 미국 경제만 2017년에 비해 성장률이 높아진 반면 유로 지역, 일본,

중국, 인도, 아세안 등의 성장률은 모두 하락했다. 하지만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2019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성장세가 모두 크게 약화됐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2기 상황은 트럼프 1기에 비해 세계 경제 성장 여건 측면에서 비우호적 상황이라는 점도 2025년 경제 성장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1기에 비해 빠르고 강도 높은 관세 정책, 미국의 경기 사이클 하락 및 금리인하 시기, 중국 경제의 저성장 및 높은 유가, 반도체 경기 정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별 경제 성장 전망은

국가별로 살펴보면 2025년 미국 경제는 2024년(2.8%)에 비해 다소 둔화되긴 하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양호한 성장세(2.1%)를 지속할 전망이다. 탄탄한 고용시장,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 지

출은 건조한 모습을 보이거나 소비의 성장세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제약적 금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 △관세 인상 추진 △세제 개편 △친환경 정책 폐기 등 파급력 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실현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의 빠른 시행 가능성은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요인으로 꼽힌다.

유로 지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은 1.3%로 2024년 0.8%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측한다. 유로 지역은 실질임금과 금융 여건 개선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개선되나 유로 지역 경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독일 경제의 부진, 과다 재정 적자에 대한 제재 절차 시행에 따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정부 지출 둔화 등으로 큰 폭의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집권 1기와 집권 2기 상황 비교

국가	협정명	트럼프 1기 정부	트럼프 2기 정부
트럼프 정책	관세	대중국 중심, 1년 6개월 후 관세 부과 시행	대중국 + 보편 및 상호 관세 빠른 시기(강도 및 속도 ↑)
	감세	○	○
	반이민	○	⊙(강도 ↑)
	규제 완화	○	○
	공급망(IRA)	×	폐기 또는 축소
미국 경제	경기 사이클	상승	둔화
	통화정책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세계 경제 여건	중국 경제	6%대 후반	4%대
	유가(두바이)	41(2016)→53(2017)→ 69(2018)→64달러(2019)	73달러(2024.12.18.)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이후 인터넷 사업 폭증)	호조 또는 정점(AI 붐 등)

일본은 2024년 0.4%에서 2025년에 1.0%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새 내각의 경제 정책 추진과 AI, 탈탄소 산업 부문에 대한 기업 투자 증가, 2024년 저성장기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엔저 효과 감소에 따른 수출 저하와 기업 실적 둔화 우려,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부과와 엔화 강세 압력 가능성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은 4.1%로 2024년 4.8%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2024년 중국의 다양한 경기부양책은 경제 안정화에 집중돼 경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트럼프 2기의 대중국 추가 관세 도입, 대중국 제재 등은 중국 경제의 성장 기여도가 높은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경제가 급랭할 경우 중국 정부가 더욱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지지대 역

할을 해줄 전망이다.

인도는 2024년 7.1%에서 2025년에도 7%에 가까운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3연임 성공으로 현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 및 민간 투자 확대, 민간 소비 증가 등이 인도 경제를 견인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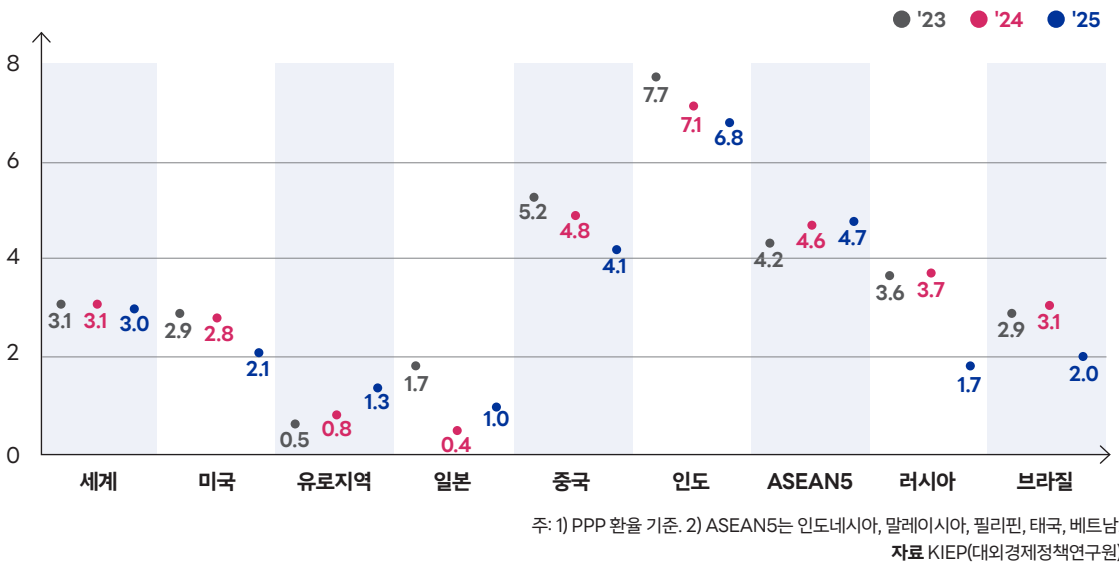
아세안 5개국 역시 △양호한 민간 소비 △외국인 투자 △관광 부문의 회복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2024년 4.6%에 이어 2025년에도 4.7%의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 위험이 있으나 아세안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제한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방 리스크 확대로 경제 부담 커져

앞에서 제시한 2025년 전망치를 추가로 낮출 수 있는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 요인은 크게 세 가

KIEP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신정부의 출범과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이다. 미국의 통상 압력이 중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으로 확산되고 상대국도 미국에 대해 보복 대응을 취하면서 전면적인 무역분쟁 발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대내외 악재에 따른 중국 경제 성장 충격’이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리스크를, 대외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트럼프 당선에 따른 대중 견제 등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리스크가 2025년에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은 불가피하다.

셋째, ‘통화정책 전환기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실질 부채 부담 증가’이다. 미국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감세, 규제 완화, 관세 인상으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와 폭이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한 일본은 물가 상승으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국들의 이 같은 통화정책이 시장 금리, 환율, 주가 등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한편 높은 시장 금리에 따른 부채 부담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세계 경제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분절화, 블록화가 심화되고 교역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자금은 미국으로 유입되며 금융시장의 차별화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은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세계 각국이 개별적으로나 동맹국 차원에서 각자도생의 길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무역 및 금융 개방도가 높은 한국의 대외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전개될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내용, 정책의 추진 속도가 국내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적시에 모색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

2025 한국 경제 좌우할 핵심변수 반도체 수출-내수 회복에 달렸다

2025년 세계 경제는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분열 속에서 한국 경제에 큰 도전과 기회를 안겨준다.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주도 산업의 성장과 내수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로 정치적 불확실성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새해 한국 경제를 전망해 본다.



동상이몽 속의 세계 경제와 동분서주하는 한국 경제

2025년, 세계 경제는 ‘동상이몽’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 두 경제 대국은 파국을 피하려는 공존을 추구하면서도 서로의 경제적, 정치적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반면, 중국은 자국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공급망 장악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국가별로 중국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갈등 구도는 단순히 두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각국은 저마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동상이몽’의 세계 속에서 한국 산업과 기업은 고유의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미·중 간의 패권 다툼 속에서 두 강대국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고 별도의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해야 하느라 ‘동분서주’하지 않을 수 없다. 탈세계화는 그동안 글로벌

화의 혜택을 누렸던 많은 국가, 특히 한국과 같은 통상 중심 국가들에 새로운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미·중 간의 대립과 분열로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여러 형태와 내용으로 분절화되고 있으며, 자유무역의 시대가 저물어감에 따라 각국은 보호주의와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2025년 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음은 물론이다.

2025년 경제 전망에서 특히 눈여겨볼 주제는 미·중 갈등 속 규제 환경의 변화이다. 두 초강대국 간의 경쟁은 기술, 무역,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산업정책의 광범한 도입 등 새로운 규제와 장벽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우리 기업에 다양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가령, 환경 규제와 탄소 배출에 대한 글로벌 기준 강화는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산업 정책의 부활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기업의 이해관계, 애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재정

-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약 1조 8천억 원) 분담
-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대상 정부 지원 한도 상향



세제

- R&D, 시설 투자 세제 지원 확대
- 2025년 반도체 주요 원재료에 할당 관세 적용



금융

- 2025년 반도체 전 분야에 정책금융 총 14조 원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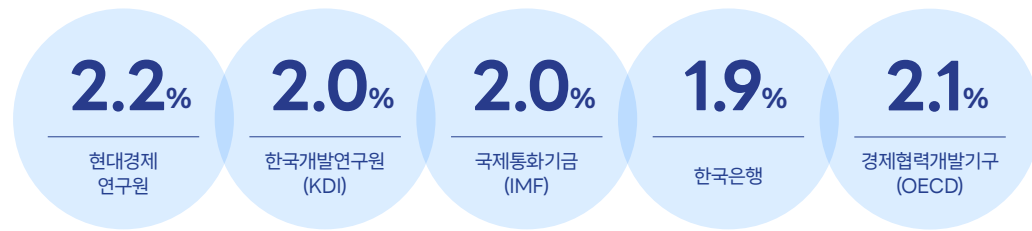


인프라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안 마련

자료 기획재정부

2025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024년 11월 말 발표 기준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하향할 것으로 보임.

로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 변화도 중요하다. 정부의 지원은 이제 단순히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넘어 역량증진형 국가(Enabling State)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출산, 육아, 주거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지속 가능한 사회 유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한국 경제 역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핵심 변수 세 가지 +알파(α)

첫 번째, 반도체 경기 회복과 자동차 수출에 대한 전망이다. 2024년에 회복된 반도체 경기는 2025년에도 자동차와 함께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AI 산업 발전과 함께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주도하고 있다. 다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이 변화하면서 성장세가 가장 좋았던 2017년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5년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호조

를 계속하고, 자동차 부문의 수출 지속 여부가 우리 경제의 균형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둘째, 2025년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소비 회복과 내수 부진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IMF, KDI, 한국금융연구원 등)은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 부진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1%대 성장률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2024년에도 이어진 내수 부진은 낮은 실질소득 증가율과 높은 가계부채 부담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소비 여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2025년 내수 회복 여부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 없이 시장 스스로 내수 회복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에 근접하는 성과를 내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 부채 문제 해결과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셋째, 미국의 정치 경제의 변화와 중국 경제의 회복 여부이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력하게 주목받을 전망이다. 보호무역과 이민 통제는 1기보다 더욱 강력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

며,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친성장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과 고용 창출에는 긍정적인 수 있지만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국의 경제 회복 여부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4년 하반기 중국이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만약 중국 경제가 회복된다면 한국의 수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침체가 지속될 때 중국산 제품이 한국과 주변국 시장으로 몰려들어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한국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추가적 요인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심판이라는 초유의 상황은 국가 운영의 정상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약화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국민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소비와 투자의 동반 침체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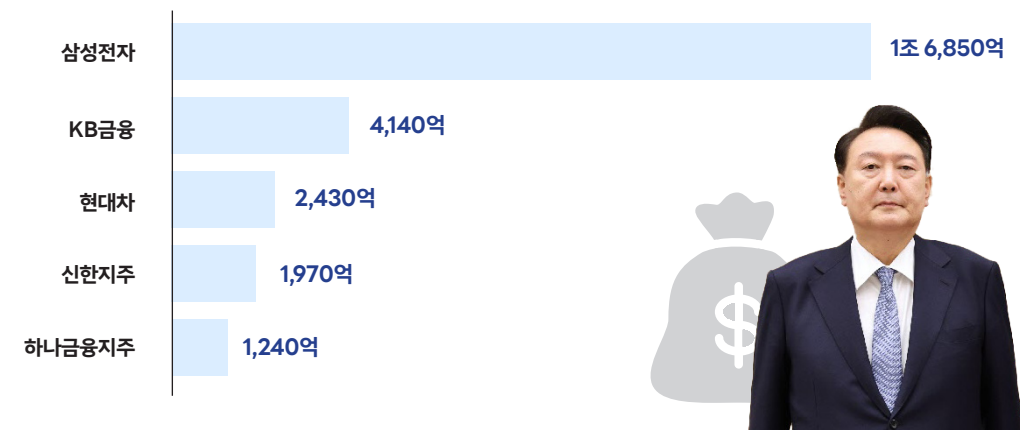
세계 경제가 이미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위기는 경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방향은

종합적으로 2025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주도 산업의 성과와 내수 회복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경제 회복 여부와 같은 외부 변수들이 여전히 한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불안정한 국내 정치 환경이 언제 회복되느냐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25년 경제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2% 수준에 못 미치는 1.5%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전례 없는 도전 앞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비장한 각오로 협력하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대외적 위험에 맞설 방파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

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순매도 밸류업 종목

단위: 원, 12월 4~20일 기준



전문가들 새해 경제 전망 “불확실성 걷어내야 희망”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경제 전망이다.
관련 변수가 많은 탓에 어떠한 전망보다 어려운 것이 경제 전망이라지만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제 전망만큼 필수적인 것은 없다.
2024년 12월 23일 IBK기업은행 본사(서울 을지로)에서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진행 아래 전문가 3인의 새해 경제 전망이 이뤄졌다.



백상경

동아비즈니스리뷰
기자

주병기 진행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경업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새해 경제를 전망하기 전에 2024년 경제는 어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땠나.

강성진 철강산업으로만 봐도 알 수 있다. 2024년 11월,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현상, 해외 저가 철강재의 공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섰다운했다. 1선재공장은 가동을 시작한 지 45년 만이라고 한다. 석유화학산업도 중국과 중동의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이라는 이슈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3조 원의 정책 자금을 수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자본의 흐름을 생각해야 할 때다. 한국은 고성장 시대를 지났으며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중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경제에 진입했다. 수출과 수입, 제조에만 국한하면 결국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옛 시대 경제 정책의 시각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백상경 동의한다. 경제를 비롯해 기업 경영 성과, 국가 경영 성과 등 모든 성과를 산정하는 지표가 쉽사리 바뀌지 않고 과거 지표에 고정돼 있다. 각종 방법론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으니 계속해서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AI 산업을 사례로 쉽게 얘기할 수 있겠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평가 방법들은 AI 산업과 같은 혁신 산업에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다. ‘수출이 잘돼야 경제가 잘된다’라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수출하고 있는지, 특히 무엇이 주요 수출 품목이며, 어떤 부분에서 중국을 뒤쫓아 가게 됐는지 등 돌파구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신속히 찾아야 하는데 전혀 바뀌고 있지 않다.

“
한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중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경제에 진입했다. 수출과 수입,
제조에 국한하면 결국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옛 시대 경제 정책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



조경엽 세계는 지금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글로벌 혁신 경제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변화에 조금 못 따라가는 듯하다. 심지어 우리나라 정통 주요 산업은 이미 중국이 앞서나가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와 같은 산업은 탄소 중립으로 인해 글로벌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어 출혈 경제에 직면했다.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AI 산업을 살펴보자. AI 기술이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체인

지메이커로 등장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산업적 능력은 중국, 인도보다 훨씬 떨어져 있어 안타깝다. 구조 개편보다는 산업의 전환을 서둘러야만 글로벌 대전환에 적응할 수 있겠다.

2024년 11월, 국내외 기관에서 내놓은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수치가 굉장히 낮다.

백상경 수출 둔화, 투자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9%, 골드만삭스는 1.8%, 국제통화기금(IMF)은 2.0%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기존 전망치인 2.1%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발표했다. 이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탄핵 결과가 반영되기 전 수치다. 더 떨어질 수 있겠다. 또한 작년 하반기만 훑아봐도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분석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2024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7월 세계 경제 전망 수정’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2.5%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 전혀 동떨어졌던 경쟁률에 불과했다. 수출이 경제성장률을 거의 책임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접어들어 수출 둔화가 이뤄지면서 확실히 경제가 꺾였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다.

강성진 2024년 말에 접어들면서 2024년 초의 예상보다 좋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회복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기대만큼 닿지 않았다. 중동전쟁, 러우전쟁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연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매해 반복되기는 하나 2024년에는 유독 심했다. 특히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 등 중국 기업들이 과잉 생산한 제품을 해외시장에 헐값에 팔아버리는 수출 전략, 즉 중국발 덤핑 공세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은 힘을 전혀 못 쓸 정도가

되지 않았다.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뿐 아니라 서민들의 상황도 좋지 않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 9,310명에 달한다. 12월 건을 고려하면 18만 건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이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이 코로나19 시기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조경엽 코로나19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부채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쳤다면 극복 성장할 수 있었을

“
작년 7월, IMF는 우리나라 경제가
2.5%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하반기에 접어들어
수출 둔화가 이뤄지면서 확실히
경제가 꺾였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다.
”



텐데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강성진 교수 의견에 덧붙여 말하자면 2024년 초만 해도 2% 이상의 성장이라는 기대가 상당했다. 하지만 2분기에 들어서 역성장하고 3분기에 간신히 2%의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2, 3분기에는 가계 부채 등의 요인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내리지 못한 것이 내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도 빠질 수 없다. 4분기에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와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됐음에도 2%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한국 정부의 경제,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방향성을 진단한다면.

강성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장금리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반응을 보였다. 동맥경화라고 할 수 있겠다. 상황에 따라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오히려 막았다. 원론적으로 보면 물은 아래로 흘러가야 한다. 한국은행이 투자, 대출 등의 기대로 이자율을 내렸는데 금융감독원은 부채를 동결했다. 흘러 내려가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러지 못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부동산, 교육 등 소위 ‘걱정거리’가 많다. 이건 한국은행의 일이 아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때에 맞춰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다.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다.

백상경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했지만 효과가 있었나? 아니라고 본다. 돈이 흘러가야 하는 길을 끊어버린 상황에서 서민들의 불안함은 더욱 커져만 가고 지갑은 더 열지 않게 된다. 과연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로 이어졌을까? 오히려 선부

른 소비를 지양하고 코인, 미국 증시 등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확실히 내수 경기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며 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조정업 한국은행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 사실이다. 2024년 들어 주택 및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주택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에 가계 부채는 늘었다.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최근에는 환율도 확 오르는 등 과감한 금리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것이다. 계속 불확실성만 키워가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금투세부터 반도체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과 관련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계속해서 정부 지원을 받고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분명히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저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 주요 선진국은 어떤가.

백상경 일본이 작년 말에 가결한 2024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보면 총 130조 원으로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 지원에 12조 원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2023년에도 추경에서 1조 8,000억 엔을 반도체 산업에 배정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 및 자국 기술 개발에 총력하며 이른바 ‘반도체 부흥’을 노리고 있다. 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조 단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여야가 잘 맞춰가고 있는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치권이라는 굴레 안에서 맴돌고만 있다.

강성진 중국 역시 64조 원 규모의 국가반도체 산업 투자펀드를 출범했다. 중국의 사상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 자립을 계속해서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조정업 ‘한국이 아닌 미국 등 외국에서 짓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도체 공장 등의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특별법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백상경 기자가 앞서 말했듯 일본은

“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부채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쳤다면 극복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여파가 이어져 오고 있다. 불확실성만 키워가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등과 관련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오히려 기업이 읍소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 2,000억 원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 역시 반도체 제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에 중국도 지원액을 늘리며 추격에 나서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반도체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엄청난 손실의 현재진행형이다.

세계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은 세계 경제 전반적인 침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가.

강성진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아니다. ‘스몰 컨트리(Small Country)’라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러우전쟁, 중동사태, 그리고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한다. 이처럼 대외 의존도가 아주 높아 한계가 있다. 또 선진국들은 현재 딜레마에 있다. 유럽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 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조정업 미국만 ‘나 홀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다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으니 전반적으로 주요 선진국들도 금리를 인하하면서 물가 안정, 소비 회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달리 트럼프 리스크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준비위원회 금리 인하가 계속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강(強)달러 현상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금리 인하 등을 바탕으로 한 통상 정책, 산업 정책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국내 1위 SCR 탈질촉매 전문기업 (주)나노

독자 개발 기술로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주)나노는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선박의 디젤엔진 등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NOx(질소산화물)를 제거해 맑은 공기를 만드는 환경 촉매 기업이다. '사원의 행복, 맑은 공기'라는 경영 이념에 온 마음을 다하는 신동우 대표를 만났다.

(주)나노 신동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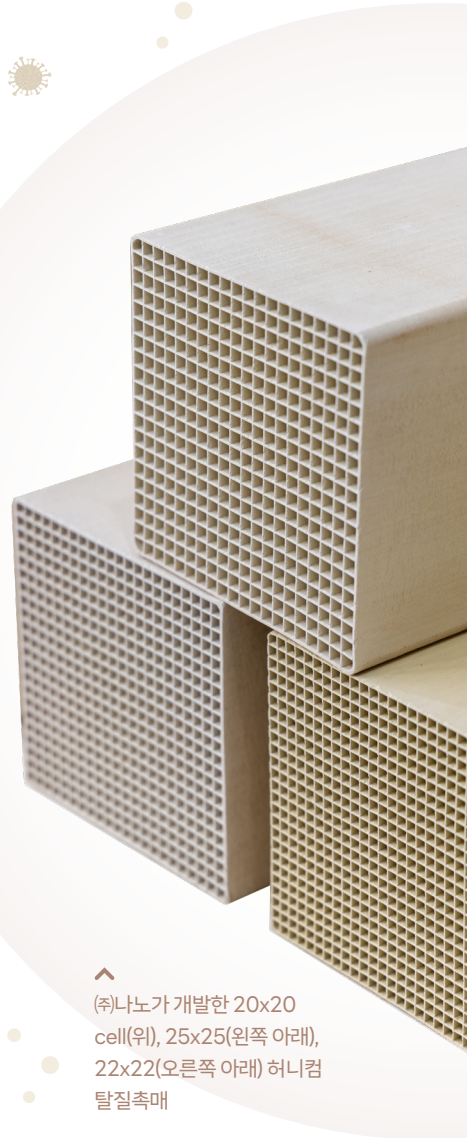


외환 위기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하나로 도전하다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무기재료공학과 수석 입학, 카이스트 대학원 재료공학 석사,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원,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영국 정부 장학생으로 재료과학 박사 수료, 일본 스쿠바의 국립 무기재료연구소 연구원, 경상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신동우 대표는 대학 입학 후 20년간 전공 분야인 재료공학, 그중에서도 세라믹스 공정과 원료 분야 연구에 전념했다. 하지만 교수 임용 2년 후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 기업의 채용공고는 찾기 어려워진 데다가 지방대학교 졸업생의 취업 문턱은 한없이 높았다. 특히 이제야 재료공학과 신소재 수요가 늘었지만 당시에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의 취업률이 월등했다. 신 대표는 참담한 상황에서도 재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에 몰두하던 신 대표는 1999년 4월, 대학 실험실에서 연구·개발한 기술로 경남 진주시에 (주)나노를 창립하게 된다.

“학부생 3명과 학과 조교 1명, 총 네 명이 저를 믿고 따라왔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신 대표는 장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금융권이 모여 있는 서울 여의도를 오가며 (주)나노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전념했다. 발 벗고 직접 뛰어다니며 알렸던 기술은 탈질촉매용 이산화티타늄(TiO₂) 원료를 나노 사이즈로 값싸게 제조하는 공법이다. 이 원료로 탈질촉매를 상용화하고 촉매 압출 장비를 개발해 국내 최초로 NH(탈질촉매)를 제조했지만 1999년 창업 당시 한국에는 질소산화물 배출 대기 규제가 없었다. 신 대표는 이번에도 상황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 질소산화물 가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었던 유럽 시장 진출을 결심했다. 2003년 5월, 독일의 전력 기업인 EnBW 이 그 시작이었다.

▲ (주)나노가 개발한 20x20 cell(위), 25x25(왼쪽 아래), 22x22(오른쪽 아래) 허니컴 탈질촉매



66
공기를 맑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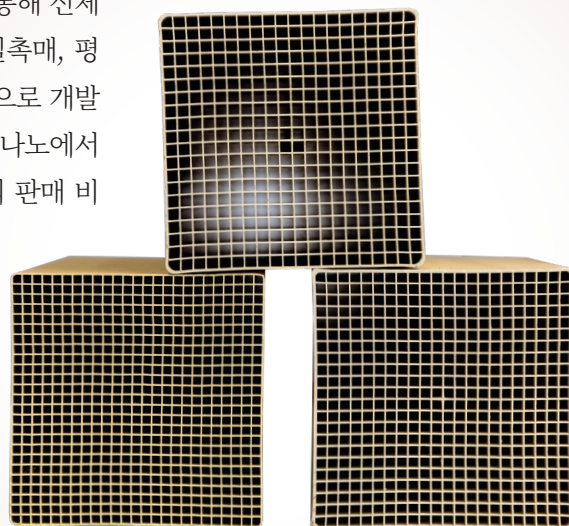


세계 1등 탈질촉매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주)나노의 성장세는 꾸준했다. 국내 발전소에 질소산화물 배출 대기 규제가 적용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주)나노의 기술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 특히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발전소뿐 아니라 선박, 산업 분야에서 대기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그리고 2015년, 규모를 키워가던 (주)나노는 IPO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게 된다. (주)나노 임원실 한쪽에 적힌 ‘낙동강의 기적! 글로벌기업의 꿈!’이라는 슬로건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시기였다.

한편 신 대표는 (주)나노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데도 적극적인 동시에 대학교 실험실에서 창업한 회사답게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하는 데도 열심이다. 석탄화력용 하니컴형 탈질촉매, 평판형 촉매, 고밀도 하니컴 촉매, 적층형 촉매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시장에 공급했다. 그 결과, 현재 국내 시장의 70%를 (주)나노에서 공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주)나노의 국내 판매 및 해외 판매 비율은 80대20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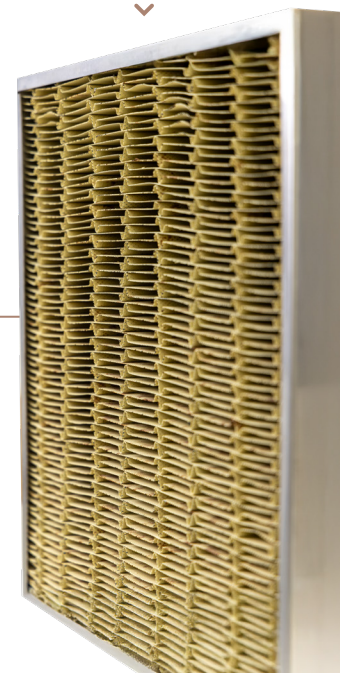
(주)나노에서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제거를 위해 개발한
하니컴 탈질촉매



“2025년 사업 계획에 따르면 국내와 해외 판매 비율이 70대30으로 천만 불 수출을 예상합니다. 또한 환경사업은 규제가 시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창업 초기 당시 (주)나노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트럼프 2기에는 화석연료에 집중해 미국 시장에서 환경 촉매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디젤 엔진과 디젤 발전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시장에서 세계 1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주)나노에 트럼프 2기의 에너지 정책은 또 한 번의 도약기를 가져다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설립 역시 급증하게 될 것. 데이터센터에는 의무적으로 비상 발전기를 설치해야만 한다. 이를 전망한 (주)나노는 디젤 비상 발전기에 장착되는 디젤용 탈질촉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기존 공장 부지에 새로운 디젤용 촉매 생산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공장이 준공되면 기존 수출액과 별개로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를 계획하고 회사를 경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주)나노가 맞닥뜨린 상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무너지지 않고 우리 직원들과 묵묵히 고군분투해오니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주)나노에서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제거를 위해 개발한
플레이트형 탈질촉매





지역 청년이 고향에서 행복한 회사를 만들다

(주)나노의 두드러진 성과를 더 꼽아보자면 인구가 약 9만 명인 소도시 경북 상주시에서 2030세대 직원이 전 직원 중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인구 및 사업체 감소 등의 이유로 도시재생 사업이 잇따르는 요즘,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는 이 시대에 소도시 소재 중소기업 직원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라는 것은 경영 측면에서도 큰 성과다. 특히 2022년, 고용노동부의 청년친화강소기업에도 선정됐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을 말한다. 유연한 근무 환경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사내 복지로 청년층의 고용 창출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신 대표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퇴근, 사무실 자리 배치 및 가구 자율 선택 등 2030세대 직원을 비롯해 전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늘 고민한다. “경영 이념인 ‘사원의 행복, 맑은 공기’를 지난 25년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일하는 업무 환경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 대표의 경영 이념은 지역사회 경제를 살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서울 같은 대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그만큼의 경제력을 고향에서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소도시에 있는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직원 4명에서 105명까지, 대학교 실험실에서 창업한 것부터 코스닥 상장, 이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까지, 경남 진주 NT 제조 공장 준공부터 국내외 공장 준공 및 자회사 코스닥 상장 계획까지. 계산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신 대표는 그저 스스로에게, (주)나노에 때때로 닥친 상황에 최선을 다해 집중했다. 이제 “낙동강의 기적! 글로벌기업의 꿈!”을 외친다. 🌐



START UP

IBK 창공 육성기업

(주)마이스터즈 • 이노맥신 • 제이엔제이테크 • 고레로보틱스(주) • (주)젠153바이오텍

MEISTERS

고객의 D/B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전산 시스템

(주)마이스터즈 천홍준 대표

- ◎ 주요 기술 24시간 365일 서비스 가능한 '24x365 서비스'
- ◎ 주요 제품 24x365 시스템을 관리·지원하는 자체 개발 전산 시스템(ERP)
- ◎ 홈페이지 www.meisterkor.com

마이스터(Meister)는 세계적인 기술 명장을 양성하는 독일 특유의 기능인을 이르는 말로 한자어로 풀이하면 명인(名人), 대가(大家), 명장(名匠)과 같다. (주)마이스터즈에는 그 의미처럼 업계의 전문 기술자들이 모였다. 가전제품 설치 및 A/S 전문 기업인 (주)마이스터즈는 모든 가전 제조사의 제품 시공과 설치, A/S, 유통판매를 대행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전업계와 소비자 간의 원활한 연결을 돕는 상생 파트너가 되는 것이 (주)마이스터즈의 목표다. (주)마이스터즈의 성과는 효율성 향상으로 증명된다. 현장의 요구 사항과 고객의 D/B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고도화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기술자 한 사람의 업무량이 하루 기준 6.1

건에서 10.2건으로 개선됐고 업무 효율 또한 전반적으로 40%가 증가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고객과 소통이 가능한 '24x365 서비스'를 통해 전국 평균 3.4일이 소요됐던 작업 시간을 2.1일로 단축하면서 업무 효율이 38% 증가했다. ERP와 챗봇을 활용한 기술자 카테고리에서는 기술자 평균 현장 서비스 시간을 96분에서 58분으로 줄여 업무 효율이 39%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주)마이스터즈는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추구한다. 탄소 저감 정책에 기여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며 실내 공기질(Indoor Air Quality, IAQ) 개선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해 친환경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자랜드 일산점에 A/S 센터 '기술자들' 1호점 개설을 시작으로 전국 전자랜드 지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마이스터즈는 가전제품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설치 및 A/S를 제공하며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소비자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가전업계의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전문 기술자들이 모인 (주)마이스터즈의 창창한 앞날이 더욱 기대된다.



2차원 나노물질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노맥신 오정민 대표

- ◎ 주요 기술 저가 원재료 활용기술
- ◎ 주요 제품 전자파를 흡수하는 2차원 나노 신소재 맥신(MXene)
- ◎ 홈페이지 www.innomxene.com

이노맥신은 2021년 4월 설립된 첨단 신소재 기업으로서 차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 주력한다. 맥신은 높은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 높은 강도와 유연성을 겸비한 신소재로 전자파 차폐, 에너지 저장 장치, 투명전극, 바이오센서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노맥신은 산업폐기물로 여겨졌던 이산화티타늄(TiO₂)을 활용해 맥신을 제조하는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공정으로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접근으로 평가받는다. 이노맥신은 MAX(전구체)부터 MXene(완제품)까지 원료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품질의 맥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이로써 전자파 차폐제, 고성능 배터리 소재, 투명전극, 바이오센서 등 다방면에서 맥신을 상용화하며 첨단 기술의 산업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노맥신은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과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산업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자원의 순환성을 실천하고 탄소 저감 효과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노맥신은 설립 초기부터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엑셀러레이터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더불어

국내 케미컬 네트워크 활용, 글로벌 1위 시약 플랫폼의 제품 론칭 완료 등 나노 소재 시장은 물론 배터리 R&D 분야에서는 국내 수계아연전지 C사와 배터리 전극용인 POC 진행, 독일 첨가제 업체와 MXene 중간재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전자파 차폐 및 스텔스 R&D 분야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협업하며 2차원 소재 시장에 진입했다. 이후 IBK 창공 대전 6기 프로그램에 선정돼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금뿐만 아니라 기업 역량 강화,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노맥신은 앞으로도 맥신 제조 기술의 응용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신소재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주)마이스터즈
천홍준 대표

이노맥신
오정민 대표



약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는 똑똑한 약매니저

제이앤제이테크(주) 조성훈 대표

- ◎ 주요 기술 AI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의약품 One-Stop 관리 프로세스
- ◎ 주요 제품 의약품 관리 솔루션 앱 서비스 '약매니저'
- ◎ 홈페이지 www.yakmanager.com

‘약매니저’는 AI 객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약국의 의약품 관리와 재고 관리를 간편하도록 돕는다. 약매니저를 개발한 제이앤제이테크(주)는 2021년에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으로 약사들의 업무 환경을 디지털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약업 중 가장 어려운 업무로 약사 10명 중 약 6명이 재고 관리를 꼽았고 반품 과정의 복잡함, 실재고 관리의 어려움 등 약업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약매니저는 AI 기술을 적용해 원스톱(One-Stop) 관리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AI 객체인식 기술을 활용해 의약품을 계수하고, 마약류 점검부를 간편하게 작성 관리할 수 있으며, AI 객체인식 기술과 연동해 의약품 재고와 반품 관리가 가능하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의약품을 주문 및 관리할 수 있어 약사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고 관리와 의약품 정보 제공의 정확성을 높여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물을 더 빠르게 제공하도록 돕는다. 제이앤제이테크(주)는 설립 2년 만에 큰 성장을 이뤘다. 2023년 3월에는 IBK창공 혁신창업기업에 선정돼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받았다. 2024년 8월에는 약매니저 앱이 출시 1년 3개월 만에 3만 명 이상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약국 현장에서의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제

이앤제이테크(주)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약매니저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약국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다. 제이앤제이테크(주)는 계속해서 약국 운영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해 의료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자율주행 로봇으로 건설 산업의 미래를 세운다

고레로보틱스(주) 이동민 대표

- ◎ 주요 기술 협지주행·자율하차, 건설특화 자율주행, EV-Bot, 통신네트워크
- ◎ 주요 제품 건설현장 운반(양중) 로봇
- ◎ 홈페이지 www.golerobotics.com

2023년 8월 설립된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인 고레로보틱스(주)는 건설 현장의 자재 운반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사람이 없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서비스를 건설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를 활용해 자율주행 로봇이 자재를 적재하고 목적지까지 정확히 운반하도록 지원한다. 이로써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작업 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온다. 고레로보틱스(주)는 법인 설립 후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성과를 일궜다. UCLA 대의 로멜라(RoMeLa) 연구소 출신 박사를 최고기술책임자로 영입하는 등 세계적인 로봇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자율주행 및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의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딥테크 TIPS 2024, 글로벌 TIPS 2024, 초격차 1000+에 모두 선발되

며 국내 최초로 3관왕을 달성했고 CES 2024에서는 혁신상을 수상했다. 현재 고레로보틱스(주)는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법인 및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을 계획 중이며 포스코이앤씨 등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및 서비스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고레로보틱스(주)는 2027년까지 국내 매출 1,000억 원 달성과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레로보틱스(주)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근로자와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건설업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고자 한다.

터(JAN Dr) 1 에버백신’이 있다. 식물의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는 병해충 예방 백신이다. 1,504개 세균 균주에서 1개의 균주를 선발해 개발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JCK1398 균주다. 또한 잔디와 인삼 등 다양한 작물에 발생하는 진균병을 방제하는 미생물 제품과 나방류를 포함한 광범위한 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Bt 살충제 제품을 개발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젠153 바이오텍은 친환경 생물농약 분야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자 연구개발(R&D)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향후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생물농약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다.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술 기업

(주)젠153바이오텍 김진철 대표

- ◎ 주요 기술 세계 최초 항공살포용 소나무재선충병 미생물농약 개발
- ◎ 주요 제품 잔닥터1 에버백신
- ◎ 홈페이지 www.jan153biotech.kr

(주)젠153바이오텍은 2020년 3월 전남대학교 농생명화학학과 김진철 교수가 창업한 친환경 생물농약 전문 기업이다. 미생물과 식물 추출물을 활용해 작물, 수목, 잔디 등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면서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표 제품으로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항공살포용 미생물 제제 ‘잔닥

(주)젠153바이오텍
김진철 대표

고레로보틱스(주)
이동민 대표

제이앤제이테크
조성훈 대표



편플레이션: 즐거울 때 활짝 지갑이 열린다

경제 불황에도 아이유 콘서트는 연일 매진이며,
2024 KBO리그는 사상 첫 천만 관중을 돌파했다.
즐거움 앞에서 가벼운 주머니 사정은 크게 중요치 않다.
편플레이션의 세계를 들여다보자.

STREAMFLATION

OTT

FUNFLATION

Fun +
inflation

POP-UP

EVENT TOURISM

CONCERT
FESTIVAL

Profile. 박지현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문화트렌드 2025> 공저

요즘 공연 티켓팅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보고 싶은 공연을 예매하려고 타이머까지 맞춰놓고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고 허탈하게 돌아선다. 특히 지난 11월 한국 초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뮤지컬 <알라딘>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이 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이런 상황을 두고 ‘픽켓팅(픽 튀기는 티켓팅)’이라는 표현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더욱 놀라운 점은 뮤지컬 <알라딘>의 티켓 가격이 VIP석은 19만 원, R석은 16만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지난 12월 내한한 유명 팝 가수 찰리 푸스의 공연 티켓도 11만 원에서 22만 원에 이르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10분 만에 매진됐으며 SNS에서는 재판매 가격이 40만 원 이상을 호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팬데믹 이후 재개된 공연과 이벤트의 가격이 전례 없이 상승해 평범한 미국 가정들이 여가 활동을 포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도하며 이 현상을 즐거움(Fun)과 물가 상승(Inflation)을 결합한 ‘편플레이션(Funflation)’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공연 입장료가 1년 새 평균 6.3%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다.

여가 비용 상승은 공연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OTT 플랫폼들도 구독료를 잇달아 인상하면서 ‘스트림플레이션(Streamflation)’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스트리밍(Streaming)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결합한 이 용어는 구독료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2024년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프리미엄 등 주요 OTT 플랫폼들은 20~40%의 요금 인상을 단행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구독료 인상의 배경에는 OTT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 상승이 있다.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된 OTT 플랫폼들은 결국 구독료 인상, 광고 요금제 도입, 가족 외 계정 공유 제한 등의 카드를 꺼내 들게 된 것이다.



특별하다면 비싸도 괜찮아

그렇다면 여가 비용의 상승이 이렇게 가속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팬데믹 이후 변화된 소비 심리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팬데믹 동안 제한됐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해 소비자들은 ‘놀 수 있을 때 제대로 놀자’라는 마음으로 여가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특히 공연이나 스포츠 이벤트처럼 현장성을 중시하는 여가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은 프로야구가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해이기도 하다. 정규 시즌 720경기 중 221경기가 매진됐고 포스트시즌에서는 한국시리즈까지 16경기 모두 매진을 기록하며 인기를 증명했다.

또한 자신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소비 가치 변화 역시 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여가 소비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러한 소비자들은 실제로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20%가 좋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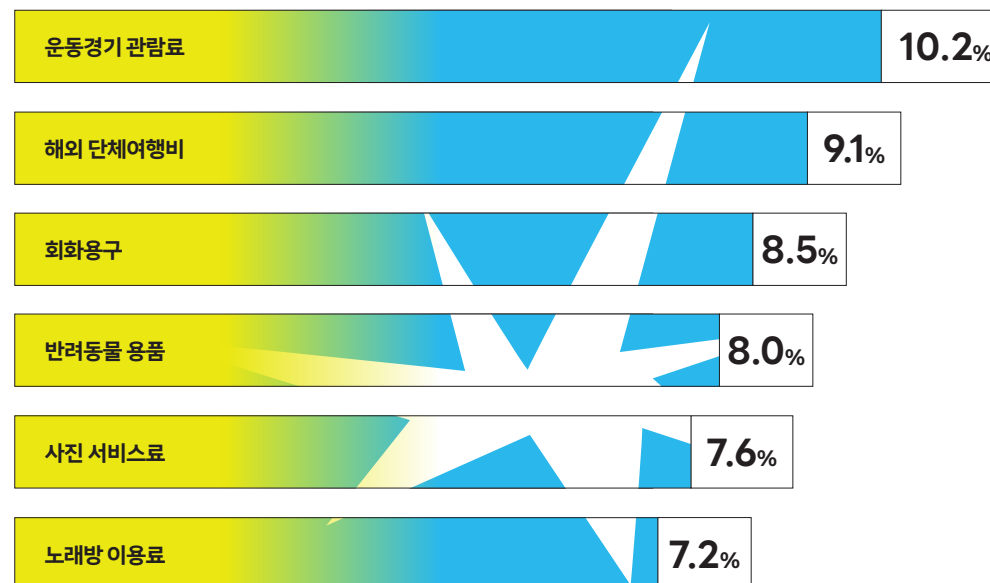
가수의 공연 티켓을 사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영화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아이맥스, 4D, 스크린X, 돌비 시네마 같은 특별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소비 트렌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는 관광 분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여행 트렌드는 호캉스나 맛집 투어가 아니라 자기만의 의미 있는 경험을 찾는 것이다. 영화나 TV 쇼, 다큐멘터리 촬영지로 떠나는 ‘세트제팅(Set-jetting)’이나 콘서트, 축제 등 특별한 이벤트 중심의 ‘이벤트 관광(Event Tourism)’이 주목받고 있으며 오로지 휴식을 위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가치와 기준에 맞춘 소비를 선호하며 새로운 경험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모습을 보여준다. 팝업스토어나 체험형 전시에 많은 소비자가 몰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2023년 오락·문화 품목별 물가 상승률

(2022년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소비자에게 즐거운 경험을 판매하라

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공연 한 번 보려면 너무 힘들다”거나 “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흔해졌다. 그런데 왜 여가 분야의 인플레이션은 줄어들 기미가 없는 걸까? 그 답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여가 활동을 소셜미디어에 남기며 자신을 표현한다. 이런 게시물은 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이 여가를 즐기는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기도 한다. 이제 여가 활동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예를 들어 뮤지컬을 관람했다는 사실은 높은 티켓 가격을 감당할 경제적 여유, 공연을 볼 시간적 여유, 공연을 이해할 문화적 이해력을 상징한다. 여기에 치열한 온라인 예매 경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디지털 활용 능력까지 인정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편플레이션은 단순한 비용 상승이 아닌 소비자 심리와 사회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치적·경제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술 발전과 주 4일제 논의 확대로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때다. 롯데월드는 아이들이 직접 공주, 왕자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기획해 많은 인기를 얻었다. 메이크업부터 의상 대여, 퍼레이드 참여에 드는 비용은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에 이른다. 절대 저렴하지 않은 비용이지만 동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에 주말과 특별 시즌에는 예약이 몰릴 만큼 화제가 됐다. 우리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과연 어떤 재미와 행복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시점이다. 



2025년 1월, 바뀌는 세법에 대비하자!

2025년에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이 2024년 12월 10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상속세를 인하 등의 이슈가 있었으나 2024년 세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2025년을 맞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세법을 토대로 중소기업이 새해에 알아둬야 할 세제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Profile. 신방수

-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

국회를 통과한 주요 세제

2025년 중소기업의 세제 전략

1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현행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당초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고용 증가 1인당 최대 2,400만 원을 적용하되 고용의무 유지를 없었으나 오히려 고용안정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정돼 채택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25년에는 현행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면 1인당 850만~1,55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중소기업이 2025년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와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10%를 추가 공제받는다. 후자의 경우 2024년에는 3%가 적용됐다. 단, 이 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대체투자, 밖은 대체 및 신규 투자에 대해 적용된다.

3 소규모 성실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인상된다.

주로 주업이 임대업인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 9~24%에서 19~24%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이 법인의 이익이 연간 2억 원이라면 2024년은 1,800만 원이지만, 2025년 이후는 3,800만 원이 된다. 한편 이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
- 주업이 임대업이거나 임대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4 상속세와 증여세의 정부 개정안은 전체가 부결되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화두는 상속세를 10~50%에서 10~40%로 완화, 자녀상속공제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많은 세수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부결됐다.

1 기업의 3대 세액공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3대 세액공제는 연구개발과 투자, 고용에 대한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액의 25%(일반), 투자는 10%(추가 10%), 고용은 증가한 1인당 최대 1,550만 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조특법에 따른 공제 요건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
-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는 대체투자만 공제가 허용되며 종고품이나 운영 리스의 경우에는 지역 불문하고 공제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 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고용 감소가 일어나면 기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됨에 유의해야 한다.

2 소규모 임대법인 등은 정교한 세무 관리가 필요하다.

소규모 임대법인 등은 법인세율 인상 외에도 중소기업 업종 배제 등이 적용돼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제외되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축소(1,800만 원→600만 원), 조특법상 감면 제한(청년 고용세액공제 최대 1,550만 원→400만 원) 등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법인은 세무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도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음에 유의해야 한다.

3 기타 소소하게 개정된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가 확정됐다. 이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 이후로 연기됐으며 주주에게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5%),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등을 위한 개정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세액공제(50만 원), 출산지원금 전액 손금 인정,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등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주목한 가치금융, 새해에도 더 높은 가치를 향해

김성태 은행장의 경영 철학과 미래전략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이 약 190개국에 독자를 보유한
글로벌 금융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김성태 은행장은 가치금융을 통해 IBK를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2025년 새해를 맞아
가치금융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글로벌파이낸스와의 인터뷰를 정리했다.



2025년에도 IBK와 같이 ‘가치금융’

김성태 은행장은 2023년 1월 취임 후 ‘가치금융’을 새로운 경영 철학으로 제시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가치금융의 핵심을 “모든 이해 관계자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은행이 고객에게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고객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은행의 가치가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집니다. 가치금융으로 IBK는 고객과 동반성장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IBK의 성장 배경에도 가치금융이 뿌리내리고 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IBK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IMF 시절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면서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IBK는 오히려 자금을 적극적으로 풀었습니다. 가치 있는 기업을 살려낸다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덕분에 IBK는 중소기업들의 신뢰를 얻었고 그 결과 이 기업들은 IBK의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되었습니다.” 현재 IBK는 자산 500조 원의 글로벌 100대 은행으로 성장했다. M&A 없이 독자적으로 이룬 성과다. 2023년 말에는 금융권 최초로 중기대출 잔액이 230조 원을 넘어서며 독보적인 1인자가 됐다. 지금까지의 IBK성장에는 ‘가치금융의 실천’이라는 원동력이 있었다. IBK는 2025년 새해에도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선으로 품고, 동반성장하는 데 앞서 나갈 것이다.

Beyond Finance, 금융을 넘어서

IBK는 기술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

원 하기 위해 스타트업에서부터 대기업 M&A까지 매 성장 단계에 걸맞은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업 간 거래 관계를 기반으로 한 대출인 ‘네트워 크론’과 대기업의 저리 예치금을 활용해 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협력대출’이 그 예다. 또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를 지원하는 ‘IBK 창공’을 통해서 역량 있는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중소기업에 위한 비금융 지원도 확대 중이다. 김성태 은행장은 “IBK는 경영·재무·인사·기업 승계 등 종합 컨설팅을 통해 매년 1,500여 개의 기업이 문제를 개선 하고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라고 말했다. IBK는 ESG 경영과 포용금융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주목 받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다문화가정 지원, 저탄소 컨설팅 제공 등의 ESG 활동도 실천 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가치금융, 진정성과 혁신으로”

김성태 은행장은 IBK의 미래 전략에 대해 “가치 금융의 진정성을 직원들과 공유하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은행장의 가치금융 철학은 IBK의 모든 전략과 실천에 반영되며 IBK를 고객과 사회, 나아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 것이 IBK가 미래를 대비하는 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퇴직연금·글로벌 카드 사업 강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고객 가치 제고와 혁신을 통해 세계적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에서 밝힌 김성태 은행장의 경영 철학과 IBK의 미래전략은 2025년 올해에도 계속된다. 📖

지금 세계는:



“금리 인하 새 국면” 또다시 찬물 끼얹은 파월



작년 12월18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이겠다고 밝히며 증시 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매파(긴축 선호) 신호를 보낸 것. 미국 경제가 견실하다는 점이 매파 신호에 대한 파월 의장의 설명이다. 발표 직후 다우지수는 하락 전환되며 10거래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1974년 10월 이후 최장 기간 하락이다. S&P500지수, 나스닥지수 또한 2024년 최대 수준의 낙폭을 겪었다. 한편, 이날 파월 의장은 연준이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中, 경기부양 위해 특별국채 3배 늘린다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책 강화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국채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당국이 올해 3조 위안, 한화로 약 600조 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작년 1조 위안 대비 3배 늘리기로 한 결정으로 조달한 자금은 내수 부양을 위한 소비 촉진, 첨단 산업 발전 투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3월 5일에는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경기부양책을 공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릴 예정이다.



9.5%

비트코인 1개 미만을 보유한 소규모 투자자가 전체 비트코인의 약 9.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경제 성장 멈췄다



영국의 2024년 3분기 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를 기록했다. 서비스 부문 침체가 제로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영국 경제에서 80%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둔화된 점이 경제 전체의 부진으로 이어진 것. 작년 7월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기업과 부유층을 중심으로 증세를 추진하며 재정 안정을 꾀했으나 집권 첫 분기에 제로 성장을 기록하며 민심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300억 달러

엔비디아가 2024년 개인투자자 1위 매수 주식 종목으로 전망된다. 2023년 1위였던 테슬라를 제친 결과다. 2024년 개인투자자들은 300억 달러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했다.



327명

2024년 퇴직한 미국 상장기업 CEO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2024년 1~11월 퇴직한 미국 상장기업 CEO는 327명으로 기존 최다 기록인 2019년 312명을 뛰어넘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 이후 급변할 경영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46%

선진국들이 국제 원조 비용을 줄이고 있다. 2024년 전 세계에서 모금된 인도주의 지원 기부금은 200억 달러로 당초 목표치였던 496억 원의 46% 수준에 그쳤다.



멕시코, 中 겨냥 수입의류 관세... 美에 ‘친구 아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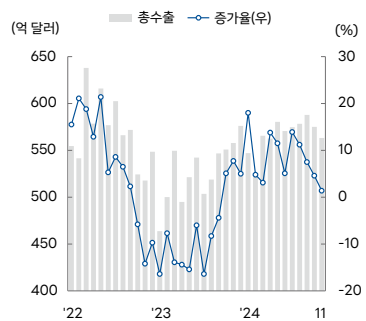


멕시코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원팀 플레이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 미국·캐나다를 제외한 의류 완제품 138종에 대해 35%의 수입 관세 부과 방침을 공표했는데, 중국 업체를 겨냥한 방침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중국 업체에 관세 장벽을 높이며 역내 경제 블록을 강화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코드에 맞춘 행보라는 것. 멕시코는 2023년 미국을 상대로 4,901억 달러를 수출하고 2,554억 달러를 수입해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Korea

수출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수출, 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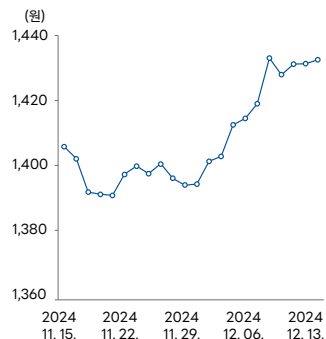
11월 수출(563억 달러)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5개월 연속 축소됐다. 반도체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승용차 수출은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고, 국가별 수출도 중국과 미국이 각각 9개월,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약화됐다.

※ 품목별 수출 증가율(% , 전동비):
(반도체) 29.8 (승용차) △14.1 (선박) 76.5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속 인하

한국은행은 2024년 11월 28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근거로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인하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차례 연속으로 인하한 후 약 15년 만이다.

달러/원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12월 환율은 고공행진

(2024년 12월 2일 1,395.1원→12월 9일 1,419.4원→12월 16일 1,432.7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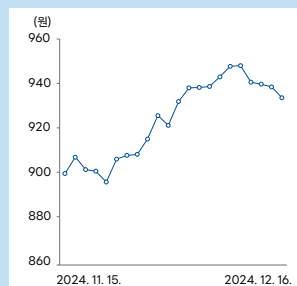
지난달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급등한 달러/원 환율은 12월 들어 북한 참전에 따른 러우 전쟁 확전 위험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환율이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야간거래 장중 1,442원까지 폭등하며 2008년 10월 이후 하루 최대 변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즉각적인 계엄 해제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정치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1,432원까지 상승했다.

2025년 1분기 말 환율 전망은 1,413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11개사)의 2025년 1분기 말 달러/원 환율 전망은 평균 1,413원으로 조사됐다. '1,420원 이상 1,433원 미만'으로 전망한 IB가 4개사로 가장 많았다.

* 환율 전망 응답 시기: 2024.11.25.~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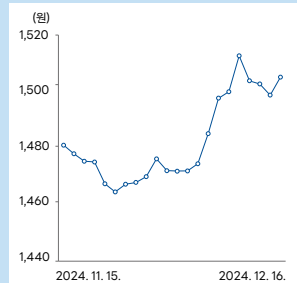
원/100엔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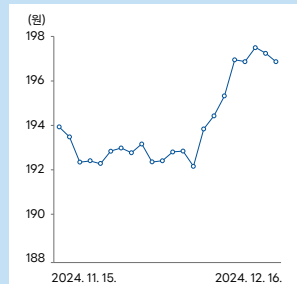
원/유로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위안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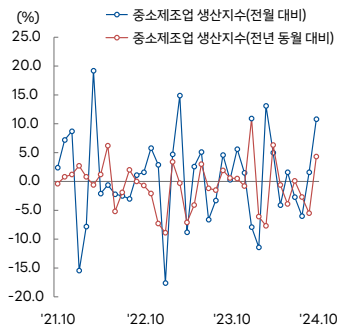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Small Business Trends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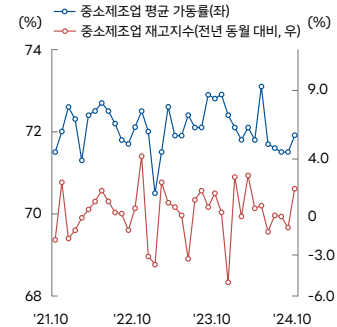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산, 전월 대비 증가

2024년 10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4.3%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반도체(8.4%), 의료정밀광학(4.0%), 식품(1.7%)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전월 대비 감소한 업종은 자동차(-6.3%), 기계장비(-3.8%), 의약품(-4.7%) 등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17.5%), 의약품(22.6%), 기계장비(9.7%)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기장비(-8.8%), 전자부품(-7.6%), 석유정제(-7.1%)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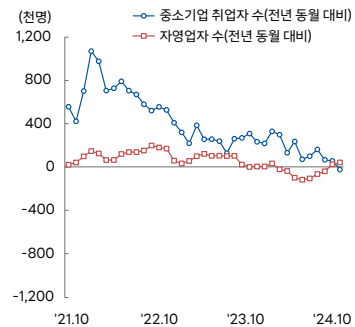
2024년 10월 중소제조업 전체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71.9%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9%포인트 하락했다. 세부적으로는 소기업(5~49인)은 0.3%포인트 증가한 68.2%, 중기업(50~299인)은 0.7%포인트 증가한 76.1%로 조사됐다.

재고, 전월 대비 증가

2024년 10월 중소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8%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반도체(9.9%), 자동차(4.5%), 전기장비(2.4%) 등에서 증가했으나, 석유정제(-4.4%), 화학제품(-1.3%), 전자부품(-2.8%)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고용



자료 통계청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감소

2024년 10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약 2,564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3,000명이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1,000명,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2만 2,000명이 감소했다.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1만 7,000명과 7만 4,000명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10만 1,000명 줄었다.

*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4년 10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7,000명이 증가하여 577만 명을 기록하였다. 📈

모두에게 곤란하고 괴로운 권고사직,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요즘 한 직원의 퇴사 문제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사에서만 5년을 근무했고 6개월 전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된 후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기는커녕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신의 업무인데도 아랫사람에게 시키기만 하고 빈둥빈둥하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팀원들이 해온 걸 꼼꼼히 살피고 피드백을 주지도 않습니다. 신입 사원이 한 작업물을 바로 팀장에게 넘겨버리니 팀장이 결국 하나하나 다시 살펴봐야 하죠. 이처럼 한 명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다른 팀원들이 나눠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온다며 한 시간씩 훌쩍 나갔다가 오고요. 이런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자 몇몇 직원이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근로자에게 능력 미숙과 불성실한 태도를 들어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음을 시인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죠. 그런데 며칠 후 찾아오더니 자신은 사직 의사가 없으며 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자신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니 능력 부족이란 판단은 저의 주관적 생각이며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요. 이는 분명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사직서를 반려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다고 말이죠.

저는 퇴사를 종용하지 않았습니니다. 그저 적절한 선에서 권고사직 위로금을 주고 조용히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싶습니다. 노무사님, 제가 정말로 부당한 해고를 한 것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노무사가 사연 상담을 해드립니다.
사연은 웹진에 마련된 의견 남기기를
이용해 보내주세요.

Profile. 윤형석

- 인사노무컨설팅 올 대표
-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업부 인사노무팀
- 전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New message

From 윤형석 노무사
Subject Re: 노무사님, 권고사직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 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 입법·정책의 변화 등 기업 조직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많은 회사가 권고사직 및 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회사와 근로자 사이 근로관계 종료로 둘러싼 첨예한 노동 분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안을 살펴봤습니다. 당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권고사직(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을 권유(계약의 청약)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계약의 승낙)하는 등 일련의 절차 내지 형식(사직서 수령)을 거쳤다는 점**, 비록 근로자가 며칠 후 찾아와 반려해 달라고 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나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이미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계약이 완성됨)하므로 이로써 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해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돼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 99두8657)는 입장이나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미 형성돼 근로자에게 도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사직서 제출 이후 이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사직서 수리의 결재 등 형식상 수리행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68207-2646, 2001.8.17.).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함은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대법99다64049 참조)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자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서울고법2005누12,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 부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비춰봤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컨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해고'라는 사실관계는 부존재(不存在)하고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意思合致)인 '권고사직(합의해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처분문서) 내용대로 그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로의 법적 성질이 권고사직(합의해지)으로 판단된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 위로금 또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Reply

Forward

Cancel

글. 한명훈

영화 <둔>

사막 위의 별을 찾아서: 미래를 여는 리더의 비전



개봉 2021.10.20.
장르 SF
감독 드니 빌뇌브
출연 티모시 샬라메, 레베카 페르구손, 오스카 아이작, 조시 브롤린, 스티븐 스카스가드

“나의 길은 사막에 있다.” 영화 <둔>의 주인공인 폴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리더가 불확실성과 가능성의 경계에서 나아가는 여정을 의미한다. 사막은 위기와 혼돈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공간이기도 하다. 리더여, 당신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

Profile. 한명훈

- 아테네학당 대표
 - <엔택트 리더십 상영관> 등

“나의 길은 사막에 있다”

- 폴 아트레이디스

2025년의 세계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 같다. 불확실성의 모래바람이 시시각각 방향을 바꾸고 멀리 보이던 신기루는 금세 사라진다.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출렁이는 모래바다 위를 떠돌고 있으며 기업들은 낯설고 험난한 길을 강요받는다. 치유되지 못한 사회의 상흔과 갑작스러운 변화의 흐름은 길을 잃게 만든다. 그러나 사막이 사막으로만 남을 때,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별을 찾아 나서야 한다. 영화 <둔>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디스는 끝없는 사막 행성 아라키스 위를 걷는다. 그에게 사막은 삶이자 죽음, 예언과 위기의 경계선이다. 그는 불확실성이라는 사막의 거대한 품에서 비전을 찾는다. 우리가 처한 이 시대도 그렇다. 끝을 알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진정한 리더는 그 모래바람을 거슬러 나아가며 ‘사막 위의 별’을 찾아야 한다. 리더는 무엇으로 길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갈 전략과 방향을 명확하게 그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리더가 마주해야 할 숙명이다.

영화 <둔>: 사막의 왕자

프랭크 허버트의 고전 명작을 원작으로 한 영화 <둔>은 거대한 사막 행성 아라키스를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폴은 자신과 가문의 운명을 이끌어갈 비전을 발견해야 하는 왕자이며 그의 여정을 통해 리더십의 본질을 그린다. 주인공 폴은 단순한 가문의 후계자가 아니다. 모래바람처럼 거칠고 험한 운명이 그를 휘감지만 그는 그 모래 속에서 자신의 별을 찾는 법을 배운다. 아라키스의 사막은 불모의 땅이자 동시에 가장 귀한 자원 ‘스파이스’를 품고 있는 공간이다. 겉으로 보기에 척박한 사막은 리더의 비전을 시험하는 시험대다. 그곳에서 폴은 단순한 왕좌가 아닌 미래를 꿰뚫어 보는 비전을 품게 된다. 그는 사막의 침묵과 모래바람을 뚫고 나아가며 자신을 진정한 리더로 변화시키는 여정을 시작한다. 우리 또한 그렇다.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누군가는 현실을 비판하며 주저앉을 것이다. 하지만 리더는 달라야 한다. 그는 모래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미래로 옮기는 존재여야 한다. 폴이 ‘사막의 왕자’로 거듭나듯 리더는 그 누구보다 먼저 길을 찾아야 한다.

사막 속의 예언자, 비전을 향한 길을 열다

사막의 밤은 깊고 어둡다. 달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폴은 사막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의 비전은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는 철학적 확신이다. 리더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힘이다. 폴은 사막을 넘으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시험한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길을 막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깨달음을 준다. 리더는 바로 이 순간에 진정한

결단을 내린다. 사막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무릅쓰고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결연한 다짐이다. 폴이 ‘프레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듯 리더도 혼자서는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 팀과 함께, 조직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비전이란 혼자 품는 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고 실현해가는 공동의 길이기 때문이다.

둔을 넘어서: 리더의 장기 전략

영화 <둔>에서 폴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비전을 확립하며 단기적인 생존을 넘어서 미래를 내다본다. 리더의 장기 전략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폴은 왕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폴은 프레멘들과 협력하며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는다. 리더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동료들과 협력하고 팀워크를 발휘해야 한다. 폴이 내린 결단은 그가 예상할 수 없는 위험 속에서도 과감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리더십의 핵심은 결단을 내리는 능력에 있으며 장기적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또한 영화 속에서 폴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과 위기를 맞이하며 이에 적절히 대응한다. 리더는 전략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성공적인 장기 전략을 이끌어갈 수 있다. 폴의 여정은 단순히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세에 영향을 미칠 유산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리더의 장기 전략은 조직이나 개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 📺

나이가 들면 저절로 철학자가 된다

필자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판매량이 1년 만에 50만 부에 육박하면서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낀 바는 그 열풍이 20대까지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 확신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그 책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다지 뜨겁지 않다. 철학에 대한 선입견 가운데 하나는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뜬구름 잡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는 비판과 함께 홀대받아 온 철학이 크게 주목받은 이유가 필자도 궁금하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저절로 철학자가 된다고 한다. 그 시점이 마흔이다. 40년 동안 축적된 경험이 숙성돼 비로소 결실을 맺는 시기다. “우리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을 제공하고, 그다음 30년은 그것에 대한 주석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는 우선 40년은 직접 겪어봐야 하고 나중에 30년은 그것이 뜻하는 바를 되짚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소한 70년을 살아봐야 인생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젊을 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 인습, 편견, 환상 등으로 왜곡하는 일이 많다. 점차 어느 정도 세상의 경험이 쌓이는 나이가 되면 젊을 때 가졌던 오류에서 벗어난다. 적어도 마흔 살이 돼야만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교육 수준이나 정신적인 능력과 크게 관련이 없다. 평범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나름의 관점을 갖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 나이에 맞는 사유를 할 줄 안다.

마흔이 넘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공평한 시각을 갖게 된다. 성숙한 인간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젊을 때는 외부의 자극에 영향을 받으며 크게 흔들리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의 확고한 주관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젊을 때는 ‘시문학’에 빠지지만 노년기에는 ‘철학’에 빠져든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야 알게 되는 진실은 세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다. 많은 것은 가려져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허영심과 같은 가면으로 가리고 있는데 평생 가면을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면을 벗게 되는데 그동안 숨겨진 인간의 본성, 세상의 모습에 환멸과 실망을 느끼게 된다.

소크라테스의 격언, ‘너 자신을 알라’의 함의는 나이가 들어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는 시기가 중년이다. 젊을 때는 열정과 욕망이 크지만 나이가 들면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된다. 오늘날 철학 교양서가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사람에게 더 인기 있는 이유는 쇼펜하우어 철학보다 ‘마흔’이라는 키워드가 더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은 인생의 성숙기에 일어나는 자신의 객관화에 필요한 사유의 힘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하다. 

Profile. 강용수

-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원
-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니체 작품의 재구성> 등

@shutterstock



등산의 백미 겨울 산행을 준비 중이라면

새해가 되면 해맞이를 위해 모인 인파로 온 동네 산이 북적인다. 겨울철엔 추위로 인해 체력 소모가 크고 해가 빨리 저 다른 계절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며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2023년 12월 24일, 관악산에 올랐다. 설산을 오르는 겨울 산행은 청신해 더 매력적이었다. 방한복, 모자, 두툼한 장갑, 아이젠 등 안전 장비로 무장했다. 오르내리는 길에 미끄럼 방지용품을 착용하지 못한 등산객은 빙판길 곳곳에서 속수무책 넘어졌다. 낙상 예방을 위해 아이젠은 눈이 오든 안 오든 겨울 산행에 필수다.

관악산 정상에 오르고 난 후 하산 중 문제가 생겼다. 아이젠 착용을 과신해서인지 급하게 내려가던 중 얼음 바닥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다. 다행히 두툼한 점퍼와 백팩 덕에 큰 부상은 없었다. 아이젠과 등산용 스틱을 사용해도 눈길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산행해야 한다. 겨울 산행은 미리 아이젠, 등산용 스틱이 녹슬거나 많이 닳아 기능을 못하지는 않은지 살피는 준비도 필요하다. 미끄럼 방지용품을 착용해도 넘어지면 몸도 마음도 난감하다.

오랜 등산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등산을 못하는 상황이다. 겨울 산행에는 무릎 손상이 빈번하다. 얼어서 딱딱한 지면은 무릎 연골에 충격 부하가 더 쌓인다. 추운 기온으로 뻣뻣해진 근육은 무릎 손상에 취약하다. 관절

연골이 찢어지거나 닳아서 문제가 생기면 산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고통의 산행이 된다.

무릎 관절과 연골 기능에는半月판(半月板, meniscus) 역할이 중요하다.半月판의 일차적 역할은 무릎 관절의 압박 스트레스를 줄인다. 또한 등산하는 동안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연골에 윤활제 및 마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半月판은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강하게 눌리며 회전해서 비틀릴 때 손상된다. 평소半月판과 연골 손상이 생기지 않게 슬개건(뽕뽕 힘줄)과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무릎 손상 다음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건 발목 바깥 인대 염좌다. 대부분 등산 손상은 내려갈 때 발생한다. 하산길에서는 체력이 떨어져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 관절이 약해진다. 바깥쪽 발목 인대 손상은 발목이 아래와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쉽게 일어난다. 심한 경우 인대 파열로 보호대를 오래 고정하거나 수술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등산 전, 후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과 발목 주위 근력운동이 필요하다.

안전한 겨울 산행을 위해서 평소 하체 근육, 관절 스트레칭과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안전 장비도 잘 챙기고 과신하지 않고 등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산로가 아닌 길로 갈 때 심각한 사고가 생기니 반드시 사람이 다니는 길로 산행하자. 📌

Profile. 안병택

- 바디안 대표
- 대한방문재활산업협회장
- <4050 생활습관 리셋>, <느리게 살살 운동합시다> 등

안전한 겨울 등산을 돕는 5분 스트레칭



엄지손가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인 상태에서 좌우로 힘줄을 문지른다.

☑ 슬개건 풀기

등산 시 부하가 많이 쌓이는 슬개건을 이완하는 방법이다. 등산 중에 쉬는 동안 슬개건 풀기는 무릎 회복에 효과적이다. 무릎 뽕뽕 아래 힘줄에 엄지손가락을 댄다. 엄지손가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인 상태에서 좌우로 힘줄을 문지른다. 아프고 뻣뻣한 부위를 찾아 집중적으로 30초 풀어준다.

☑ 미니 스쿼트

앞쪽 허벅지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 중 내측광근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린 후 팔을 가슴 앞에 교차한 후 다리를 살짝 안쪽으로 모은다. 무릎이 지면 기준으로 45도 정도 구부러지게 살짝 내려간 후 올라온다.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15회씩 2세트 반복한다.



무릎이 지면 기준으로 45도 정도 구부러지게 살짝 내려간 후 올라온다.



구부린 다리를 앞으로 이동하면 반대쪽 다리가 스트레칭

☑ 종아리 스트레칭

무릎, 발목 손상과 근육 피로에 영향을 주는 종아리 근육을 늘리는 방법이다. 벽을 잡고 한쪽 다리는 앞으로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는 무릎을 펴고 선다. 구부린 다리를 앞으로 이동하면 반대쪽 다리가 스트레칭 된다. 이때 발뒤꿈치는 최대한 지면에 댄다. 스트레칭 자세로 30초간 유지한다.

‘CEO REPORT 웹진’이 오픈합니다

...

소식지 <CEO REPORT>를 온라인으로 만나 보세요!
PC,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CEO REPORT 웹진>이 오픈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CEO REPORT 웹진 접속하기



기업은행이니까 유연도 믿고 맡깁니다

지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객과 기업 곁을 지켜 온
IBK기업은행

그 변치 않는 믿음을 알기에
인생의 마지막, 소중한 유산까지
맡기고 싶습니다

믿음직한 상속으로 내 뜻을 지켜주는
IBK 내뜻대로 유연대용신탁



믿을 수 있는 국책은행
63년 역사의 국책은행으로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계약관리



내뜻대로 상속설계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상속 설계



간편한 신탁계약
형식이 엄격한 유언장 대신
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유사 효과



안정적인 상속집행
신탁전문가와 함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상속 집행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979호(2024.10.15.) 유효기간(2025.10.14.),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197호(2024.10.16.~2025.10.15.) ※자세한 문익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IBK 내뜻대로 유연대용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나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의 기본계약보수는 신탁원본의 0.5%, 집행보수는 신탁원본의 0.2~0.8%, 운용보수는 운용자산별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참고바랍니다.